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사전타당성조사 해외 출장 결과 보고서

서기관	법제정보담당관	기획조정관	차 장	처 장
조창희	이상수	김재홍	이강성	김영언

2019. 12. 10.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정보담당관실

인도네시아 출장 결과 보고

2019. 12. 10. 법제정보담당관실

I 출장 개요

□ 목 적

- '21년도 정부부처 제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법령정보 시스템 통합 및 정비 지원 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
 - 수원국에서 제출한 PCP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 현황과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타당성 분석
 - 법제업무 담당 기관의 법령 관리 및 운영, 현행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IT 현황 확인 분석
- KOICA ODA 사업 선정 및 '21년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협의

□ 내 용

- 기 간 : 2019. 11. 24.(일) ~ 11. 30.(토), (6박7일)
- 방문기관 : 인도네시아 국가법령개발청(BPHN, 베페하엔)
인도네시아 법무부 법제국(DITIJEN PP, 디티젠 페페)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SETCAB, 셋캅)
인도네시아 전자정부통합협회(EGCC)
KOICA 현지사무소
- 출 장 자 : 법제정보담당관외 6명(법제처 3명, 외부전문가 3명)

II 기관방문 및 내용

- (국가법령개발청(BPHN)) 인도네시아 BPHN 법령정보시스템 소개 및 법령도서관, 기관 내 전산실 방문
 - 법무부 산하 국가법령개발청 법령정보시스템 소개 및 향후 시스템 구축 운영 요청 사항 설명
 - PDF 다운로드형 게시판 형태의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약 36,000건 정도의 법령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
 - 국가법령개발청 법령정보시스템은 1,600여 기관이 연계되어 법령 자료를 받아 시스템에 등록 및 PDF로 서비스하고 있음
 - 향후 시스템 구축 시 여러 기관의 법령정보 자동 수집 기능과 법령본문까지 검색 가능한 시스템 구축과 기자재와 서버실 구축, 한국의 법제관리와 IT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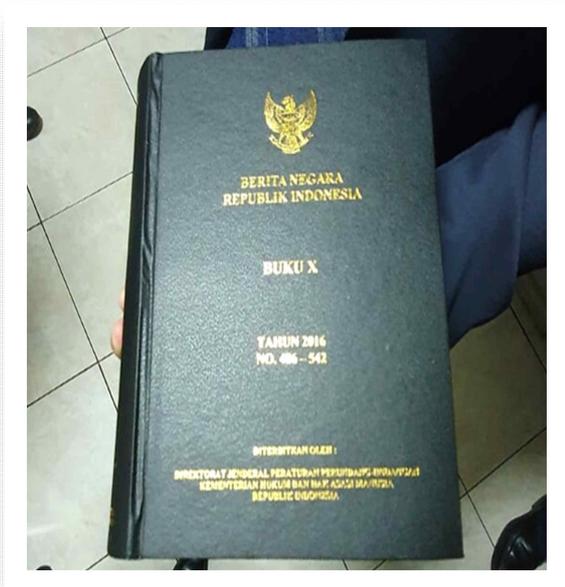


- 국가법령개발청 부청장 면담에서 사업 목적과 방향 논의
 - 현재는 인도네시아의 법체계를 통합하고 완성시키려는 시기로 우리도 KLIS처럼 법령정보를 통합하고 서비스하는 시스템을 원함
 - 인도네시아의 모든 법령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세부 검색 기능이

포함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국민이 이용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목적임



- 국가법령개발청 내 법령도서관 방문으로 법령 자료 확인
 - 1948년부터의 법령 데이터 스캔본을 보관하고 있으며 법률은 2019년까지 가지고 있음
 - 법제국(DITIJEN PP)에서 법률, 정부령, 대통령령, 부령은 공포와 번호화를 하여 원본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시스템 등록과 스캔본 보관을 담당함



○ 국가법령개발청 내 서버실 방문을 통한 IT 현황 확인

- 5평 정도의 별도 공간에 서버 2대 및 네트워크 장비, UPS 등 부대시설 운영 중(법무부 내 IDC 센터에 일부 시스템 별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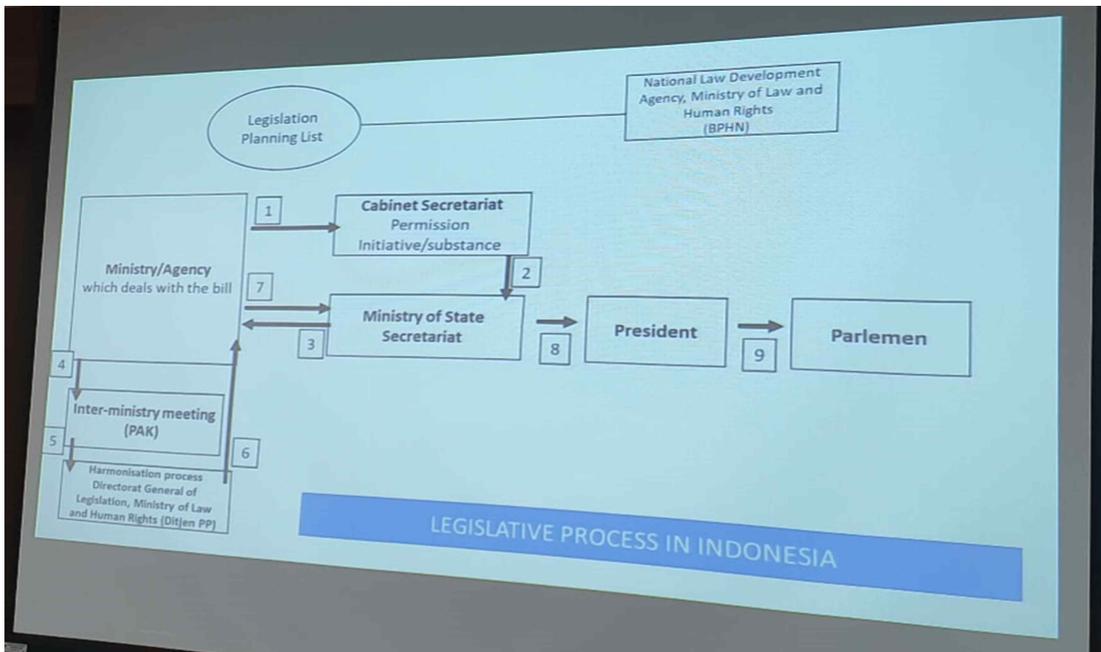
□ (내각사무처(SETCAB)) 사업 소개 및 내각사무처의 참여 여부, 인도네시아 법령공포 절차, 법령정보시스템 현황 확인

○ 법제기관 신설에 대한 진행사항 설명

- 일원화된 법제기구 신설에 대한 법률 준비는 완료되었고 조직 구성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 되었음
- 현재 법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내 국가법령개발청(BPHN), 법무부 법제국(DITIJEN PP), 내각사무처(SETCAB), 국가사무처(SETNET)의 기능들이 통합될 예정임

○ 인도네시아 법령공포 절차 및 법령정보시스템 현황 설명

- 법령(법률, 정부령, 대통령령, 부령)의 관보는 법무부가 담당하며 종이형태로 법제국에서 관보를 만들고 법제업무 담당기관의 4개의 시스템에 PDF 형태로 제공됨
- 4개 기관의 시스템이 다소 차이가 있으며, 각 기관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법무부 국가법령개발청(BPHN)에 많은 데이터가 있음



- (법제국(DITIJEN PP)) 법제국 업무 및 관보 제작 운영 현황, 법령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확인
 - 법제국 업무 및 관보 제작 운영 현황 확인
 - 법제국의 주요 기능은 입법 지원, 심사와 조정, 관보 제작과 공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관보에는 법률, 정부령, 대통령령, 부령, 행정규칙이 포함 됨

- 1945년부터 제작된 관보를 모두 보관하고 있으며, State Gazette (법률, 정부령, 대통령령)과 Official Gazette(부령, 행정규칙)으로 구분하여 1945년부터 발간된 법령집과 수록된 법의 공포번호 등을 관리 운영 하고 있음

○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확인

- 법제국 운영 법령정보시스템이 있으며, PDF로 서비스하고 있으나 관보에 대한 법령정보를 MS-Word 파일로 보관하고 있음
- 시스템은 법무부 내 자체 IDC 센터에 입주해 있으며, 자체적으로 개발 및 운영 관리를 하고 법제국 법령정보시스템 사이트에 현재 116만명의 누적 접속자수를 기록하고 있음
- 향후 신규 시스템의 법령DB 구축 시 법령 데이터에 대한 검수가 가능하며, 공포 발행부서 15명의 인력이 이를 담당할 것임



□ (EGCC 협의) 인도네시아 IT 현황 및 전자정부 추진 계획 확인

○ 인도네시아 IT 및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 인도네시아는 UN의 정보화 수준으로 2단계 해당(4단계 선진화) 하며 유선 인터넷 보급률은 50%이상으로 도심지는 10Mbps의

속도이고 휴대폰 보급은 잘 되어 있으며 3G와 4G 사이 속도임

- 시스템 구축에 있어 SW/HW 자체 개발을 하며 오픈소스를 많이 사용하나 유지보수가 잘 안되어 기관 사이트의 접속이 안되거나 운영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전자정부 추진 및 운영 계획 확인

- 인도네시아 기획부 및 재무부가 전자정부 추진이 잘 되어있으며 정부기관의 중복 부처와 기능이 많아 국가차원의 중복된 데이터에 대한 통합 정책(One-Data Policy)을 추진 중임
- 시스템 설치 시 인도네시아 사이버امن호원(BSSN)의 별도 검수를 받아야 시스템 구축 설치가 가능함



□ (KOICA 협의) 수원기관 PCP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업 타당성 조사 일정 논의 및 협의

- 수원기관의 PCP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IT 관련 현지 조사 결과 협의 및 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
-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소요 예산 현황, 집행계획 (PD), 산출물품질계획서 검토

III 출장 결과

- (관찰 및 평가) 수원국의 법제총괄기구 신설 추진과 더불어 효율적인 입법체계관리와 안정적인 법령정보 제공을 위해 법제, IT분야 등 우리의 선진역량 전수 및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수원국 법제업무 담당기관의 법령정보데이터가 불일치하고 서비스 제공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의 법령정보 접근이 어려움
 - 법무부 국가법령개발청, 법무부 법제국, 내각사무처, 국가사무처 등 4개 기관의 법령정보시스템이 각각 법령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으나 PDF 형태로만 제공되고 있음
 - 일원화된 법령정보 제공을 위한 법령정보 DB 구축과 법령의 검색, 법령간 연계 등 기능이 강화된 포털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의 인도네시아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의 신규 구축이 필요
- 약 36,000건의 법령데이터의 수집 및 정확성 검수 역할을 담당하는 법무부 법제국(DITIJEN PP)의 역할이 중요하게 판단됨
 - 현재 사업수요(PCP)를 제출한 법무부 국가법령개발청(BPHN)은 법제국(DITIJEN PP)에서 공포된 법령을 기관 내 법령정보시스템 등록과 지방청의 법령정보를 등록하여 서비스하는 형태임
 - 36,000건의 법령정보 데이터화에 있어 정확성 검증과 검수를 위해선 향후 본 사업 추진 시 법무부 법제국(DITIJEN PP)이 사업수행 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 타당성 조사 후 사업예산을 850만불(약 101억, 부가세 포함)로 현실화 KOICA 협의 완료
 - 법제와 IT분야에 대한 수원국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내 초청연수, 현지 연수, 현지 전문가 파견의 정책컨설팅 분야, 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분야 추가로 인한 사업예산 증가

□ (향후 일정)

- 2019.12.20. 집행계획, 예산, 산출물품질계획서를 KOICA 제출
- 2020년 상반기 2차 사전타당성조사(출장)
- 2020년 하반기 인도네시아 법무부와 KOICA간 계약 체결 (실시협의 출장)
- 2021년 상반기 KOICA 수의계약 사업관리 업체 선정
- 2021년 상반기 KOICA 조달계약 BPR/ISP 주사업자 선정
- 2021년 하반기 BPR/ISP 사업 종료
KOICA 조달계약 시스템구축 주사업자 선정
- 2022년 상반기 시스템 구축 사업 시작
- 2022년 하반기 시스템 구축 사업 종료, 인도네시아 법령정보 시스템 서비스 개시
- 2023년~2025년 KOICA 조달계약에 의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주사업자 선정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사업 진행

□ 2019. 11. 24.(일)

○ **항공이동 (인천 → 인천공항)**

- 시간: 15:00 ~ 20:00
- 장소: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 → 인도네시아 수카르노하타국제공항
- 주요내용
 - * 인천공항 집결(13:00)
 - * 인천→수카르노하타국제공항(15:00 ~ 20:00)
 - * 탑승수속, 출국심사, 항공이동, 입국심사



○ **숙소 체크인 및 종료미팅**

- 시간: 21:00 ~ 21:30
- 장소: 자카르타 그랑 멜리아 호텔 (Gran Melia Hotel)
- 주요내용
 - * 체크인, 공지사항 전달, 전체 일정 및 목표 점검



□ 2019. 12. 25.(월)

○ **일일 개시 회의**

- 시간: 08:30 ~ 08:40
- 장소: 숙소 로비
- 참석자: 조사단 전원
- 주요내용
 - * 일일 일정 브리핑
 - * 주요 업무 내용 브리핑
 - * 주의 사항 및 금일 획득 결과에 대한 협의



○ **사전타당성조사 KOICA 개시 회의**

- 시간: 09:00 ~ 11:40
- 장소: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 참석자: 정희진 KOICA 현지사무소장, 김송주 KOICA 현지사무소 부소장, 조사단 전원
- 주요내용
 - * 사무소장 인사말
 - * 사전타당성조사 일정 공유 및 조정
 - * 산출물 작성 가이드라인 공유
 - * 수원기관 및 조직에 대한 협의
 - * 사업 예산 및 범위에 대한 협의



- 회의록

(KOICA : 김송주 부소장)

1. 조사일정브리핑 :

- 월(오후) 법무부-국가법령개발청 회의
차관급 인사 참여할 수 있음.
BPHN에서 발표를 준비했으며, 기관 현황, 사업 범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수행
- 화(오전) 법무부-국가법령개발청 회의
기술회의,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
PCP에 대한 수정
- 화(오후) 내각사무처 방문
수원기관을 법무부로 한 이유는 법무부가 실질적인 기술자나 장비등이 있으며, 내각사무처는 총괄기관으로 PCP 등을 작성할 능력이 되지 않았음.
또한 향후 설립될 기관의 경우, 현재 구체성이 떨어지며, RD 계약 전에 설립이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기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법무부를 수원기관으로 선택함
- 수(오전) 법무부 내 Ditijen PP (법제청, 법제 감수 역할 수행) 방문
조직은 법무부 내에 9개의 하위 조직 중 하나이며, BPHN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기관임
- 수(오후) 1팀 - KOICA 통합회의
월~수 동안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PCP 등을 수정
목 오전에 인도네시아 관련 부처 및 대한민국 외교부, KOICA 등의 통합회의에 사전타당성조사단 및 KOICA의 합의된 의견 마련
2팀 - Oracle 미팅, BPHN의 개발업체 미팅
현재 기술 협의
- 목(오전) 통합회의
- 목(오후) 행안부 EGCC(전자정부협력센터) 미팅
인도네시아의 전자정부 진행 등에 대한 현황 조사
- 금(오전) BPHN 사전타당성조사 종료회의
PCP 합의안 도출
- 금(오후) KOICA 사전타당성조사 종료회의
PC, 예산, 일정, 합의
PCP 수정
전문 작성

(법제: 법제정보담당관) 수요일에 2개의 팀으로 분리되는 것보다, 가능한 통합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KOICA) 일정을 조정하겠음

(법제) BPHN에서 PCP를 제출하게된 이유는?
 (KOICA) 내각사무처와 관계도 알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내각사무처가 PCP를 쓸 능력이 되지 못함.
 BPHN은 TV와 시스템에 대한 PCP를 제출하였음

(법제) 현재 인도네시아 조직 관련된 진행상황은 어떠한가?
 (사무관: 이연지 사무관) 법은 통과되었으나, 시행령은 작성 중에 있음.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업무에 대한 Role에 대해 아직 결정 중에 있음. 각 부처의 정치적 문제가 연관된 것으로 보임

(KOICA) 사업의 시작을 타중에 기관이 생기면 편입하는 방법도 있음
 (교류: 법제교류담당관) 나중에 기관이 변경되면 다시 범위 등을 협의해야 하는가?
 (KOICA) 그것은 아님, 그러나 현재 새로운 기관이 생길 때까지, 내각사무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임

(사무관) 내각사무처도 직접한다는 생각보다는 통합이나 관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음
 (KOICA) 결국 사업의 발굴차원에서 수원기관은 법무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내각사무처는 현재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음

(법제) 관련되어 위임과 같은 것이 있는가?
 (사무관) 위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본문에서 역할에 대한 명시가 있을 뿐임
 (법제) 아직 수원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교류) 법제처 MOU 체결시, 조직과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음,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러한 책임을 내각사무처에 준 것으로 보임. 우선은 사업은 인도네시아의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반적인 방향으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KOICA) KOICA의 입장은 수원기관이 확실해야 함
 (교류) RD 체결시까지 결정되어야 하는가?
 (KOICA) RD는 행정적인 절차일 뿐이며, 사업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수원기관에 사업의 결과가 정착되어야 함. 현재로써 내각사무처는 소극적인 상황임

(교류) 조직 신설과 시스템을 같이 진행하는 쪽으로 봐야할 수도 있음.
 (KOICA) 내각사무처랑은 정책적인 이야기를 위주로, 법무부랑은 기술적인 이야기를 위주로 진행해야 할 수 있음

(법제) TV는 사업의 범위에 들어가는가?
 (KOICA) 들어가지 않음. 그러나 오늘 대화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음

(교류) 어떠한 규모를 생각하고 있는가?
 (KOICA) 국회방송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아서 뻔 예정임. 이번 사전타당성 종료시 뻔 것을 협의할 것임

(IT: 이춘택 이사) 영국법과의 비교는 포함된 것인지?
 (사업: 변정원 연구원) Bill 이라는 것이 입법인지? 전자결재인지?
 (KOICA) 오늘 회의에서 이러한 부분을 물어봐서 확인해봐야 할 것임

(KOICA) 이번부터 집행계획(PD)에 대한 심사를 진행함. 12월 20일까지 KOICA에 PD가 제출되었으면 함. 수준은 미얀마 수준으로 진행하면 될 것임

(법제)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규모가 정해진 것인가?

(KOICA) 아님. 증액은 문제가 없을 듯 함

(서기관: 조창희 서기관) 미얀마 당시 DB 구축할 때의 경험을 설명 (장당 단가)

(법제) 예산은 가능한 정직하게 가야함

(서기관) DB의 입력 방법에 대한 설명.
서버는 국가법령에 맞추어 Spec을 결정함

(KOICA) 유지보수의 경우, 현지업체를 통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2~3년 정도가 필요함
시스템은 업그레이드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오히려 역량강화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음

(서기관)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 새로구축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크게 절감이 됨

(KOICA) 역량강화의 경우 초청연수나 전문가파견시 현지연수로는 한계점이 있음. 이에 장기적인 과제를 계획하여 역량강화를 진행할 것을 요청함.
성과관리에서도 기초선/중간선/종료선이 있으며, 각 10만불씩 현지업체에 용역을 주어 성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KOICA) BPR/ISP에 신설조직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는가?

(교류) 법제처 자체예산안으로 진행 중이나 아직 내각사무처랑 협의과정이 남아 있음

(KOICA) BPR/ISP에서 정책컨설팅도 있는가? 수요가 있음.

(법제) 사업기간 5년에 대해 아직 예산을 편성하진 않았다. 공무원 1명을 이러한 정책 컨설팅에 포함할 수 있는가? 즉, 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가?

(KOICA) 이러한 정책 컨설팅은 필요한 부분이다.

(IT) 현재 시스템은 어떠한 수준인가?
자신이 파악하기론 한국의 시스템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인도네시아 시스템은 PDF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한국 시스템은 조문 내용까지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사무관) 인도네시아에선 대부분 Google을 통해 법령을 검색한다. 법무부 시스템은 그중의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하며, 활용도 역시 낮다.

(사무관) ~~관보는 국가사무처에서 발행된다,~~
공포는 각 부처에서 한다.
심사는 Ditjen PP에서 한다.
두 번째 심사는 내각사무처에서 한다.
~~세 번째 심사는 국가사무처에서 하며,~~
대통령 제가를 받아
법무부가 이를 저장하고
~~관보로써 발행되는 것은 국가사무처에서 한다.~~

- (IT) 신설조직과 기존 IT 조직이 있어, 사업에 대한 수원기관의 문제와 카운터파트에 문제가 우려된다.
- (KOICA) 이에 대해선 통일이 필요하다.
- (법제) 가능한 의사결정 단계는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은 처음이니,
관련된 곳은 모두 방문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가능한 요청을 적게 받을 필요가 있다.
- (KOICA) 최근 KOICA 사업은 현지 PM, 현지 컨설턴트를 둔다.
보통 현지인으로 두며, 2명 정도가 필요하다. 이를 반영해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경제성 분석 이유 등으로 1500만불 이하이어야 하며, 1200만불 정도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소장: KOICA 사무소장) 조사 잘해주시고, 미얀마를 벤치마크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코위 정부의 5가지 정책 중 이사업은 5번째 거버넌스에 해당한다.
PCP는 현재 법무부에서 받았다.
또한 인도네시아 내각개편이 최근에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조직도는 전달하도록 하겠다.
- (KOICA) 역량강화는 중요하다. 전문가 파견시 현장교육으로는 부족하다.
- (KOICA) PM과 PC를 분리하는 것이 요즘 추세이다. 미얀마는 어떻게 진행하였는가?
- (사업) KOICA와 법제처/정보원이 계약하고, 정보원이 조달청을 통해 주사업자를 계약하여 분리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사업) KOICA에서 조달을 진행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인가?
- (KOICA) KOICA 조달 방법을 설명. 구체적인 방법은 차후에 다시 논의하자. 성과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선 분리가 중요하다.
- (KOICA) 최근에는 PDM을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스템 활용도, 만족도, 영향도, 행정비용 절감 같은 것은 미얀마 사업에서 가지고 올 수 있다. 다만, Output - Outcome 이 연결될 수 있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이 부분도 차후에 다시 논의를 하자.
- (KOICA) 단, 이러한 성과의 경우 현지업체를 통해 조사를 해야한다. 초기선, 중간선, 종료선에 대해서 앞서 말한 것과 같다. 초기선은 보통 현재를 의미한다.

(교류) 입법지원시스템은 어떠한가?
(사무관) 인도네시아는 아직 입법예고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이 없다.
(법제) 법에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무관) 큰 틀에서 내용이 있으나, 실질적이 모습은 없다.

(KOICA) 이 시스템은 대국민 서비스인가?
(HW: 이기승 사무관) 대국민 서비스이다. 모바일 등까지 포함된 것으로 PCP에 기술되어 있다,
PC 등은 보급되어 있는가?
(사무관) 1인 1PC는 보급되어 있다.
(사업) 그렇다면 가능한 OA 군 및 불필요한 것에 대해선 HW 부분을 축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KOICA) PCP에 대해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번에 수정될 필요가 있다.

○ **법무부(BPHN - JDIHN) 개시회의**

- 시간: 14:00 ~ 16:00
- 장소: BPHN 회의실
- 참석자: BPHN - JDIHN (정보국) Yasmon 국장 외 9명
김송주 KOICA 부소장 외 4명 (통역 포함)
조사단 전원
- 주요내용
 - * BPHN 의 환영 인사말 및 참석자 소개
 - * KOICA 및 사전타당성조사단 참석자 소개
 - * BPHN 의 개요 (설립 규정, 조직, 인원, 역할)
 - * 조사단 일정 소개
 - * 사업 개요 소개
 - * 국가법령 및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설명
 - * BPHN 의 현재 문제사항 및 요구사항
 - * 사업 방향성에 대한 논의



- 회의록

(JDIHN: Yasmon 정보국장) 환영 인사말

(KOICA) 사전조사단소개

(JDIHN) JDIHN의 조직도 및 역할 기능을 설명

(KOICA) KOICA-MOLEG를 통해 새로운 법령정보시스템이 들어갈 것이다, 이에 대해 금요일에 다시 이야기 하겠다.

(JDIHN) 현재 자신들의 시스템은 1600여 기관이 멤버로 있다. 많은 부분 자신들이 자료를 받고 있으며, 각 지방에서도 법령정보를 스캔하여 이를 자신들의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다. 일부 조직 및 기관에서는 아직 등록되지 않아 자신들이 완전하지 않다. 자신들의 법령정보는 법령, 지방법, 판례, 결정례, 법령 연구보고서, 법령 논문 등 약 26만 건의 정보를 담고 있다.

(JDIHN) 자신들의 시스템은 아직 보안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다.

현재로 PDF로 서비스 하고 있는데 HTML로 서비스를 하고 싶다.

각 시스템에서 주는 것만 넣는다. 우리는 이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각 부처 등의 정보등은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온다.

(KOICA) 범위를 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선 법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떠한가?

(JDIHN) 자신들에게 정보는 법령뿐 아니라 가능한 자치법까지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무관) 법령은 법제처에서 담당한다. 자치법은 행자부의 엘리스에서 가지고 온다. 판례는 대법원에서 가지고 온다. 각 기관별로 관리하는 법령정보가 있으며, 이를 서로 주고 받는다.

(IT) 이 기관이 이 사업에서 원하는 것이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관리인가? 아니면 이를 사용자에게 쉽게 전달하는 것인가?

(JDIHN) 둘 다 중요하지만, 우선은 행정효율성을 위해 수집과 관리에 초점을 둔다.

(사업) PDF를 HTML로 입력하여 법령DB를 구축하는 것은 인원이 필요하다.

(서기관)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예전의 방식이며, 더욱 발전적인 방향은 법령DB를 구축하는 것이다.

(JDIHN) 텍스트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가? 이미 우리도 법령정보에 대한 다양한 텍스트 정보를 가지고 있다.

(서기관) 우리는 편장절관조항호목 단위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IT) 통합이 문제라면, 데이터의 표준화가 되어 있는가?

(JDIHN) 우리도 표준화되어 있다. 이러한 표준화에 따라 멤버들이 정보를 제공한다.

(법제) 이러한 법령정보는 관보에서 오는가? 사이트에서 가지고 오는가?

(JDIHN) 정보국은 관보가 없다. 사이트에서 가지고 온다.

- (법제) 이들의 의사를 존중해주자. 원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가?
- (사업) 미얀마 사례 발표. 우리의 시스템은 법령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 (JDIHN) 우리는 법령정보의 획득을 시스템으로 가지고 오려고 한다.
- (법제) PDF에서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서비스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인가?
- (사업) 텍스트를 가지고 오는 것은 컨버팅의 문제이다. 이는 있으나 완전하지 않아, 결국 모두 다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각 부처의 시스템에서 PDF를 가지고 오는 것은 크롤링의 문제며, 각 부처의 시스템이 변경될 때마다 우리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다시 고쳐주어야 한다.
- (KOICA) 16시에 공무원 퇴근으로 이제 회의를 종료해야 한다.
(출근 07:00 ~ 퇴근 16:00)
- (JDIHN) 내일 추가적인 회의를 진행하자.

○ KOICA 일일종료 미팅

- 시간: 16:00 ~ 17:00
- 장소: BPHN 회의실
- 참석자: 김송주 KOICA 부소장 외 4명 (통역 포함)
조사단 전원
- 주요내용
 - * 사업의 범위에 대한 논의
 - * 사업의 수행방법에 대한 논의
 - * 사업의 수원기관에 대한 논의



- 회의록

- (IT) 우리가 제공하려는 시스템과 JDIHN에서 원하는 시스템이 다른 것 같다.
우리는 DB에서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시스템이다.
JDIHN이 원하는 시스템은 각 기관의 정보를 DB로 입력하는 시스템이다.
- (KOICA) 차이는 확실한 것 같다.
- (법제) 34개의 부처의 사이트에서 정보의 획득이라면, 각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문제이다. 책임의 문제이다.
- (KOICA) 인도네시아에서 각 부처의 협조는 정말 힘든 문제이다.
- (법제) 이미 JDIHN의 PDF는 수집과 검증이 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수집된 PDF를 대상으로 텍스트 변경을 하면 되지 않는가?
- (KOICA) 수원기관을 BPHN으로 확정하진 않는다. 다만,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수원기관이 결정되길 바란다. 내일 PCP를 가지고 다시 JDIHN과 이야기 하자.
- (법제) 의사결정을 위해 좀 더 상위 조직이 필요하다.
- (KOICA) 실질적으로 법무부는 이러한 세부 사업에는 관심이 없다.

○ 조사단 일일종료 미팅

- 시간: 20:00 ~ 20:10
- 장소: 숙소 로비
- 참석자: 조사단 전원
- 주요내용
 - * 개별 조사 결과 공유
 - * 개별 일일보고 작성 및 통합
 - * 내일 일정 브리핑
 - * 내일 업무 방법 공유



□ 2019. 11. 26.(화)

○ **일일 개시 회의**

- 시간: 08:00 ~ 08:10
- 장소: 숙소 로비
- 참석자: 조사단 전원
- 주요내용
 - * 일일 일정 브리핑
 - * 주요 업무 내용 브리핑
 - * 주의 사항 및 금일 획득 결과에 대한 협의



○ **법무부 BPHN 부청장 면담**

- 시간: 09:00 ~ 09:30
- 장소: BPHN 회의실
- 참석자: 야유디 부청장 외 2명,
 김송주 부소장 외 3명, 조사단 전원
- 주요내용
 - * BPHN의 사업 참여의 의도



- 회의록

(부청장)	어제 회의 결과에 대해선 브리핑 받음. 무엇을 할 것인지? 협업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JDIHN의 지원이 필요함. 그리고 법률지원센터의 지원도 필요하다. 지금인 인도네시아의 법체계를 통합하고 완성시키는 시기임
--------------	---

(법제: 이상수 법제정보담당관) 인도네시아의 서비스와 우리의 서비스는 차이가 있으며, BPHN이 원하는 목표 모습이 어떠한지 알고 싶음

(부청장) 무엇이 다른가요?

(법제) 인도네시아는 수집과 저장 기능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 법령 단위의 PDF를 제공하는 기능이 중심이다. 이러한 기능은 주요 사용자가 공무원이다. 그마저도 어렵다.

한국의 시스템은 인도네시아의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을 DB화 하여 대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 HTML 중심의 법 단위가 아닌 그보다 세부단위의 부가서비스들이 제공된다. 한국의 시스템은 대국민이 주요 사용자이며, 하루에 50만명씩 들어온다. 공무원은 일부일 뿐이다.

(부청장) 우리도 한국처럼 되길 바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제) 어제 BPHN에서는 정보를 수집하는 쪽을 원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 뒤의 일을 하길 바란다.

우선 인도네시아 법령을 모으고, 이것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시스템은 각 부서의 데이터를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보관하는 정도이다. 이것이 정말 100% 모은 것인가?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검증을 할 것인가? (질문 1)

(부청장) 한국의 시스템으로 가길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방향을 잘 모르겠다.

(JDIHN: 정보부 야스몬 국장) 인도네시아 시스템을 만든 규정은 대통령령을 기본으로 하며, 새로 만들 때마다 법무부의 표준절차에 따른다. 이러한 표준을 드릴 것이니 방향 설정시 참고해 달라.

(KOICA) 이 사업의 목적은 수집이 아니라, 대국민 Provider의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BPHN이 할 것인가? 그러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가? 가질 수 있는가? (질문 2)

(법제) 질문 1 반복

(JDIHN)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다.

(법제) 통합되지 않은 것도 있지 않는가?

(JDIHN) 법률, 정부령, 대통령령은 다 가지고 있다. 부령은 몇 개 부족하다. 이는 차후에 자세히 논의하겠다.

(KOICA) 질문 2 반복

(JDIHN) 사업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이 단순한 수집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우리도 생각한다. 법령정보시스템을 만드려 하는 것을 큰 그림으로 보는 것은 우리도 고려하고 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이야기 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은

1. 데이터를 모으는 것
2. 인프라
3.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것 이다.

(법제) BPHN이 원하는 방향과 역할을 잘 알게 되어 감사하다. 우리가 제공하려는 것과 같은 것을 만드려는 의지를 확인했다.

(부청장) 종료인사. 관련된 협의는 아래에서 계속 진행해 주길 바란다.

○ **법무부 BPHN 법령도서관 방문**

- 시간: 09:30 ~ 10:00
- 장소: BPHN 회의실
- 참석자: 야스몬 국장, 김송주 부소장 외 3명, 조사단 전원
- 주요내용
 - * 도서관의 상태와 주요 소장자료들



회의록

(JDIHN)	우리의 법령도서관이다. 최근 10년간 예산의 문제로 확장하지 못했다. 그 후로부터 법령은 각 부처에서 가지며 더 이상 책자는 우리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법제)	법령집이 있는건 아닌가?
(JDIHN)	1948년부터의 데이터가 있다. 법률(법령 아님)은 2019년까지 가지고 있다.
(교류: 김남연 법제교류담당관)	꼭 부처가 법무부에 보내야하는 의무가 있는가?
(JDIHN)	아니다. 그리고 있는 것도 스캔본이다. 원천 소스는 Ditijen PP (법무부 법제국)이 원천이다. 공포는 법제국이 하며, 이를 등록하는 곳이 BPHN 이다.
(법제)	그럼 여기는 등록을 목적으로만 하는 곳인가?
(JDIHN)	맞다. 등록과 보관을 목적으로 한다.
(JDIHN)	법률, 정부령(우리엔 없는 개념이며, 대통령령보다 상위임), 대통령령, 부령은 법제국에서 공포와 번호화를 하기 때문에 모두 가지고 있다. 자치법령은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각자의 지방에서 관리하고 있다. 우리엔 많은 지방이 있다.

○ **법무부 BPHN 실무 협의**

- 시간: 10:00 ~ 10:30
- 장소: BPHN 회의실
- 참석자: 야스몬 국장 외 9명, 김송주 부소장 외 3명, 조사단 전원
- 주요내용
 - * PCP 내용 검토
 - * 업무 범위 협의 및 질의 응답



회의록

- (JDIHN) 우리는 모든 법령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전자화 되어있다.
- (서기관: 조창희 서기관) 한국의 과거 정보시스템에 대한 설명
PDF 방식은 모두 실패했고, 결국 우리와 같은 방식만 남게 되었다. 내용(법)을 검증하고 현행화하는 것이 중요함
- (KOICA) PCP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다.
- (JDIHN) PCP의 목적부터 설명.
중간에 KOICA에 의해 저지 당하고 활동위주로 다시 설명
설명 중간에 스스로 포기하고.
PCP는 KOICA와 함께 작성하였음. 사실 우리도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지는 않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국가의 법령 문서와 정보를 위한 DB를 만드는 것임.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여러 법령 시스템을 일원화 하는 것임
- (법제) 대통령에게 권한을 받은 것이 아닌가?
- (JDIHN) 대통령이 지시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님.
이에 2012년에 처음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을 만들었으나, 아마 그 목적이 나 필요성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이를 위한 인원이나 역량도 부족함
- (IT: 이춘택 이사) 우리의 시스템이 기존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아님. 기존의 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대로 운영하고, 우리의 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도메인도 새로 하고) 운영하는 것을 권장함. 기존 시스템과의 연결은 그 다음 문제로 보임

- (KOICA) PCP 내용 중 하나 집고 넘어갈 것이 있음. 유상이나 결제 시스템을 원하는 것인가? (PCP 내용 중 일부를 선택하여 이야기함)
- (JDIHN) 아님. 우리도 무상을 원함. 기존의 내용 중 잘못된 것은 KOICA에서 준 내용을 그대로 쓴 거라 우리도 상세 내용은 모름
- (JDIHN) 그럼 향후 사업의 진행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 (사업: 변정원 연구원) 사업의 진행을 설명 (1년차, 2년차, 3~5년차, 초청연수 및 교육, 수원기관의 역할과 책임 등, 초청연수 6회로 변경)
- (IT) HW 구성에 대한 설명
- (JDIHN) 우리는 서버가 없다. 서버도 제공하는 것인가?
- (IT) 이 사업의 범위 내에 있으며, 이미 우리는 모델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알아야 우리도 이 모델을 여러분들에 맞게 조정하여 제시를 할 수 있다.
- (JDIHN) 지금 서버실을 가보자. (서버실 이동)
- (KOICA) 금요일 오전에 다시 BPHN을 방문한다. 그 전까지 BPHN에 가져야할 역할과 책임을 작성해주길 바란다.
- (서기관) BPHN에서 검증할 수 있는가? 정확한 법령정보인가?
- (법제) BPHN이 가진 문서가 서명된 문서를 스캔/복사한 것이니 정확하다는 의미인가?
- (JDIHN) 그렇다.
- (법제) PDF는 스캔한 것이니 정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가 말하는 검증은 스캔한 것이 아닌 HTML로 제공되는 문서이다. 이것을 검증해 줄 수 있는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 (JDIHN) 질문 요약(pdf vs html), 장단점 요약
- (법제) 이젠 스마트폰 시대이다. 이 시대는 HTML 시대이다. 기존시스템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추가로 제공하려는 시스템이 스마트폰 시대에 적합하다.
- (JDIHN) 목요일 미팅시 더 자세히 이를 논의하길 바란다.

○ 법무부 BPHN 서버실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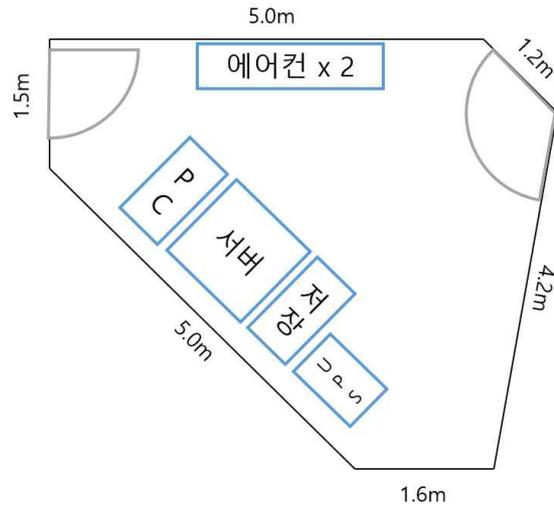
- 시간: 11:30 ~ 12:00
- 장소: BPHN 회의실
- 참석자: 야스몬 국장 외 2명, 김송주 부소장 외 3명, 조사단 전원



- 주요내용

회의실 뒤에 서버실이 존재함

서버실은 다각형의 모습이며, 각 변은 (5m, 1.2m, 4.2m, 1.6m, 5m, 1.5m) 의 길이를 가짐.



이중마루 아님, 외부에 시스템들이 더 있다고 함. 서버 구성도는 사진 참조

배전반은 2개 있으며 사진을 참조

전력은 220v 임 (사진 참조), 330v 3상 없음

에어콘 2대(항온항습기가 아님)와 UPS 1대가 있음

1개의 42U 표준랙이 있으며, (사진 참조)

외부에 1U 홈페이지 서버가 나와 있음 (사진 참조)

1개의 관리 PC가 밖에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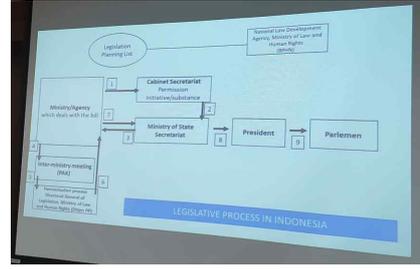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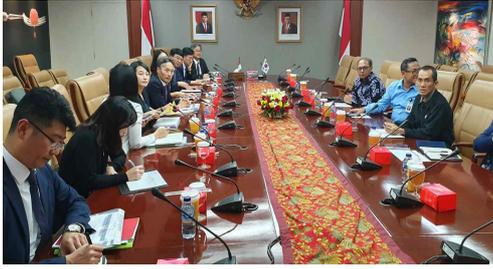
PDF 보관 및 제공 서버, 홈페이지 서버, 내부 기능 서버가 존재함

각 모델명 등은 사진을 참조

사실 IDC는 다수 존재하나, 아직 정부 IDC는 없음. 2021년부터 이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NIA가 인도네시아와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됨. 정확한 내용은 EGCC (금요일 오전 방문 예정)에서 나올 것으로 보임

○ 내각사무처 미팅

- 시간: 14:00 ~ 16:00
- 장소: 숙소 로비
- 참석자: 푸르노모 법무국장 외 8명, 조사단 전원
- 주요내용
 - * 사업소개
 - * 법령공포 절차 논의
 - * 사업 참여여부 논의



- 회의록

(교류)

방문 인사
방문 목적 설명
참석자 소개

(내각: 내각사무처 푸르노모 법무국장) 환영 인사

이미 이연지 사무관 (내각사무처에 파견된 법제처 공무원)을 통해 많은 부분은 정보가 제공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길 바람

(KOICA)

사업의 소개
계획, 일정, 예산 등을 준비 중에 있다.
이해당사자 분석을 위해 여러분들과 대화하고자 한다.
사업은 5~10년
예산은 아직 불명확하나, 700~1000만불 생각하고 있다.

사업의 구성 설명
대한민국 법제처와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가 MOU를 맺은 것을 알고 있다.
최근에 대통령끼리 여러 협정을 맺은 소식도 있다.

(교류)

일원화된 법제 기관에 대한 현재 진행결과는 어떠한지요?

(내각)

우선 인도네시아에 신설조직(법제처)를 만드려는 법률은 준비되었다. 그리고 내각 사무처는 상세한 부분(대령 초안인 것으로 추정됨)을 준비하였고,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아직 공식적으로 재가되진 않았다.

(KOICA)

언제쯤 재가되고 신설될 것인가?

(내각)

모르겠다.

(법제)

그 계획에 법무부 JDIHN가 흡수되는 것이 포함되었는가?

(내각)

확실하게 기능은 포함된다. 그러나 직원이 모두 움직일지는 모른다.

(사무관)

법무부 법제국(Ditjen PP)도 흡수하는가?

(내각)

법무부 BPHN, 법무부 법제국, 내각사무처, 국가사무처의 기능들이 통합될 것이다. 조직을 구성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

(법제)

법률이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후 절차는 어떠한가?

(내각)

부처에서 입법안을 만들고 내각사무처에서 내용을 보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동시에 국가사무처를 통해 관계부처에게 전달된다.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한다.

법무부 법제국 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부처에게 되돌려 준다.

부처가 국가사무처에 이를 전달하고, 국가사무처를 통해 대통령에게 간다.

대통령에게 가는 것은 정부령, 대령과 부령이다. 대통령의 재가가 있는 후 국회로 간다. 법률은 국가사무처에서 바로 국회로 간다.

국회에서 협의를 거친 결과가 대통령에게 돌아가며,

대통령의 승인 후 법무부로 전달한다.

법무부가 관보를 담당한다.

(법제)

대통령이 국회에 전달할 때는 누구의 서명이 들어가는가?

(내각)

대통령이 국회로 전달할 때는 대통령서명, 법무부 서명, 주무부처 서명이 들어간다. 대통령이 법무부로 전달할 때는, 대통령서명, 법무부서명이 들어간다.

(법제)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존재하는가?

(내각)

종이관보는 의무이며, 전자관보는 의무는 아니다.

관보의 형태는 서명을 받을 때의 형태와는 다르다.

(법제)

관보는 어디서 발행하는가? (질문 1)

국민들에게 어떻게 제공되는가?

(내각)

4개의 시스템이 있다. 내각사무처, 국가사무처, 법무부 법제국, 법무부 BPHN에 각자 존재한다.

이 4개의 시스템을 통합하길 바란다.

(KOICA)

어떠한 시스템이 많이 쓰이는가? (질문 2)

(법제)

질문 1 다시. 법제국에서 관보를 만드는 것인가?

(내각)

맞다. 그러나 법제국의 형태가 원래 형태는 아니며, 보기도 불편하다.

(법제)

여기서 말하는 법은 모든 법을 의미하는가?

- (내각) 법률, 정부령, 대령, 부령을 의미한다.
4개의 시스템이 다소 차이는 있다.
1. 국가사무처(SetNet)의 시스템은 비교적 최신의 것이다.
가장 빨리 공포가 된다.
그러나 1999년 이후의 법령만 있다.
 2. 우리것(SetKaB)은 다른 시스템에 비해선 많은 법령이 있다.
네덜란드 식민 시대 법부터 있다.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우리는 해석(약 2줄 정도)이 제공된다.
 3. 법무부 BPHN의 시스템은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다.
법무부 지방청과의 네트워크가 있으니 많은 데이터가
있을 것이다.

(KOICA) 질문 2 다시.

(내각) 잘 모른다.

(법제) 내각사무처는 몇몇이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가?

(내각) 운영조직은 15명 정도이나, IT 담당자는 3~5명 정도다
부령은 정부령에서 위임되었으며 연간 1000개정도 만들어 진다.

(법제) 관보는 어디에 실리는가?

(내각) 많은 곳이 있으나, 모두 법무부 소관이다.
공식적인 곳은 Lembaran Negara 이고
Berita Negara 도 있다.

(법제) 새로 만드는 시스템은 인도네시아 시스템들과 다르다. 우리의 시스템은 현재 시
대에 맞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시스템의 개선이 아닌 새로운 시스템
이 구축된다. 이 시스템을 어떠한 곳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내각) 신설조직이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운영될 것이다. 새로운 법령정보시스템에 의해
기 시스템들은 흡수 통합 또는 없어질 것이다.

(법제) 이러한 시스템을 내각사무처가 운영할 생각이 있는가?

(내각) 저희는 1주일에 3회 이연지 사무관과 만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해서 많이
질문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좋아한다. 좋아하는 이유는
쉽게 볼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또한 완벽해서 좋다. 우리는 한
국 외의 다른 나라의 시스템도 비교해보았으나, 한국시스템이 우리에게 제일 적
합하다고 생각한다.

(KOICA)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 기존 시스템이 없어진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그
런다고 이 사업을 신설될 조직과 서명할 수도 없는 일이다.

(내각) 우리는 대통령에게 명령을 받은 것을 이미 실행했다. 그리고 그 조직을 누가 리
드할지에 모른다. 그리고 관심도 없다.

(교류) 현재 상황을 보면,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문제로 조직신설이 대기중인 상황이다. 우린 누구랑 사업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누가 이 사업을 책임지고 할 것인가?

(내각) 이 사업은 KOICA와 BPHN의 사업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영향력이 없다. 아마도 이 사업은 준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실행하긴 힘들 것이다. 그 이유는 아직 이를 책임질 기능을 가진 곳이 없기 때문이다.
신설조직이 생기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어떠한가?

(KOICA) 종료인사. 감사합니다.

(내각) 추가적인 질문은 언제나 사무관을 통해 질문해주길 바란다.
종료인사.

○ 조사단 일일종료 미팅

- 시간: 18:30 ~ 18:40
- 장소: 숙소 로비
- 참석자: 조사단 전원
- 주요내용
 - * 개별 조사 결과 공유
 - * 개별 일일보고 작성 및 통합
 - * 내일 일정 브리핑
 - * 내일 업무 방법 공유



□ 2019. 11. 27.(수)

○ **일일 개시 회의**

- 시간: 08:30 ~ 09:00
- 장소: 숙소 로비
- 참석자: 조사단 전원
- 주요내용
 - * 일일 일정 브리핑
 - * 주요 업무 내용 브리핑
 - * 주의 사항 및 금일 획득 결과에 대한 협의



○ **KOICA 미팅**

- 시간: 09:00 ~ 12:30
- 장소: KOICA 현지 사무소
- 참석자: 현지사무소장, 부소장, 조사단 전원
- 주요내용
 - * 집행계획 작성 가이드
 - * PCP 및 예산 수정 방향 결정
 - * 통합 미팅시 PPT 작성 요청



○ **법무부 DITIEN PP (법제국) 미팅**

- 시간: 15:00 ~ 16:30
- 장소: DITIEN PP 회의실
- 참석자: 법무부 DITIEN PP 트리 과장 외 1명,

법무부 BPHN 드위 과장

- 주요내용

* 기관 개요



회의록

(KOICA : 김송주 부소장) 인사말

참석자 및 사업 소개

방문의 목적 소개

(PP : DITJEN PP 트리 과장) 사람 소개

주요 업무 및 조직 체계 소개

(PP) 주요 기능은 입법 지원, 심사/조정, 관보제작 및 공포, 송부, 법제사 양성 및 지원, 자치법령 심사 및 지원

(법제 : 이상수 법제정보담당관) 자치법은 심사와 조정이 의무사항인가?

(PP) 의무는 아니다.

입법절차 소개, 심사절차 소개 및 연간 건수, 검수 결과 예시

관보 제작 기능 소개

State Gazette엔 법률, 정부령, 대령이 포함됨

Official Gazette엔 부령, 행정규칙이 포함됨

자치령은 지방관보에 포함되나, 법제국의 역할은 아님

(법제) 언제부터 이러한 관보가 나왔는가?

(PP) 1945년 부터임

(법제) 모두 이곳에서 보관하고 있는가?

(PP) 모두 보관하고 있음

(법제) 웹사이트가 있는가?

(PP) 있다.

(법제) 총 몇 건의 법령이 들어가 있는가? (질문 1)

- (PP) 시스템을 열어보면 알 수 있다. 기다려 달라.
연별 공포건수
조직 인원수
PT 발표 종료
- (법제) 감사합니다. 법령 1건당 페이지 수는 얼마나 되나요?
(PP) 법령마다 다릅니다.
(법제) 평균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PP) 60~100장 정도 되지 않을까요?
(사업 : 변정원 연구원) 법령집을 가지고 있는가?
(PP) 예.
(사업) 법령 앞 표지에 번호가 법령의 번호를 의미하는가?
(PP) 예. (1권에 130개, 페이지 수 2000페이지, 1건당 15페이지 정도)
(사업) 이러한 법령집이 몇 권이나 되는가?
(PP) 1945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책 3권을 가지고 음.) 청색 표지가 State Gazette에 해당하는 법령이며, 검은색 표지가 Official Gazette에 해당하는 법령이 담겨 있습니다. (검은색 1권에 120개, 페이지 수 2500페이지, 1건당 21페이지 정도)
1945년부터 발간된 법령집과 수록된 법의 공포번호 등이 관리되고 있는가?
(PP) 관리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KOICA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 (질문 1에 대한 답변) 현재 시스템에 포함된 법률, 정부령, 대령은 8423여건, 부령은 14469건, 행정규칙 4174건 자치법령 15965건이 있습니다.
(HW : 이기승 주무관) BPHN에 있는 법령의 숫자와 여기와 숫자가 다르다. 어디까지 포함되는가?
(PP) 부령까지입니다.
(HW) 그래도 숫자상에 차이가 있다. 어떠한 차이인가?
(BPHN : 정보국 트리 과장) 우리는 모든 법령 메타리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PP) 우리는 관보에 공포된 모든 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HW) 서버실이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볼 수 있나요?
(PP) 서버실이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 본부에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해 방문할 순 없습니다.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HW) 사진으로 보기엔 미얀마 IDC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사설인가요? 정부 통합센터인가요? 법무부 소유인가요?
(PP) 법무부 소유입니다.
(HW) 현재 사이트에 해당된 서버 장비의 스펙을 알 수 있을까요?

- (PP) 법무부 내의 많은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어, 곤란합니다.
- (HW) 그럼 법무부 서버실의 장비들의 Spec을 알 수 있을까요?
- (PP) 향후 KOICA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HW) IDC에 시스템을 넣는 것은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 (PP) 무료입니다.
- (HW) 그럼 법무부에서 IT 관련된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 (PP) 법무부의 인원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러나 법제국은 6명의 인원이 있다.
- (IT : 이춘택 이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나요? 외부 협력사를 두나요?
- (PP)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개발도 합니다. 다만 법무부 본부에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 (HW) 내일 전체 회의에 법무부 IDC 센터에 담당하는 사람이 올 수 있나요?
- (PP) 현지 상황은 불가능 하다, 다만, 법제국에 속한 분은 내일 참석할 수 있습니다.
- (법제) DB에 입력하면 검수를 할 수 있는가?
- (PP) 공포 발행부서에서 이를 진행한다.
- (법제) 몇 명인가?
- (PP) 15명이다.
- (사업) MS-Word 파일을 가지고 있는가?
- (PP) 가지고 있다.
- (IT) 관보에 대한 Word 파일을 가지고 있는가?
- (PP) 가지고 있다.
- (법제) 영어법령도 가지고 있는가?
- (PP) 일부만 한다. 외국과 관련된 주요 법들만 한다. 111건이 현재 등록되어 있다.
- (조직) 이 시스템의 사용자와 목적은 무엇인가?
- (PP) 누적 접속자수는 116만명이며, 대부분 학생, 법률 전문가, 등이다. 아마도 BPHN이 가진 시스템도 비슷할 것이다.
- (조직) 그렇다면 이 두 시스템은 무엇이 차이가 나는가?
- (법제) Word 파일과 PDF 파일이 동일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곳이 이곳인가?
- (PP) 단계별로 서명을 한다.
- (PP) 우리는 법률을 찾을 때 키워드로 찾기를 바란다. 한국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감명을 받았다.
- (서기관 : 조창희 서기관) 우리가 제공하려는 시스템이 그것이다. 우리가 속한 부서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책임을 지고 있다.
- (KOICA)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내부시스템이 있나요?
- (PP) 없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점차 개발되길 바랍니다.
- (KOICA) 감사합니다.

○ KOICA 일일 종료 미팅

- 시간: 17:00 ~ 17:30
- 장소: 숙소 카페
- 참석자: 김송주 부소장, 조사단 전원
- 주요내용
- * PCP 내용 검토

* 업무 범위 협의 및 질의 응답

회의록

(서기관)	이 사업은 BPHN(정보국)이 아닌, DITIJEN PP (법제국)에서 해야 한다. 이곳이 이미 법제처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미 법령정보도 가지고 있다. 기록국이 이를 가지고 오는 것에 많은 시간이 걸리며, 못가지고 온다면 스캔한 자료를 다시 입력부터 해야 한다. 이는 불필요한 낭비이다. 법제국에서는 이미 수집도 되어 있고, 검증할 수 있는 역량도 가지고 있다. 이곳하는 것이 99%로 성공확률이며, 정보국에서 하는 것은 99% 실패이다. 수행조직을 정보국에서 법제국으로 변경해야 한다.
(사업)	사업관리 측면에서 수원국 분담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중요한 분담사항 중 하나는 수집과 검증이다. 법제국은 이를 이미 만족하며 할 수 있다. 금요일에 정보국에 이러한 분담사항을 제공했을 때 받아들일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미지수 임으로 법제국이 적합한 조직이다.
(IT)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법령정보에 대한 Ownership 이 법제국이 더 높으며, 등록시기에서도 법제국이 우선이다. 정보국은 결국 법제국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제국이 더 적합한 조직이다.
(조직)	현재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보면 법제국이 정보국보다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의 경우도 법제국이 원본이며, 정보국은 사본이다. 시간상으로도 정확도 측면에서도 법제국이 더 적합한 조직이다.
(HW)	시설로만 보아도 법제국이 정보국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다. 또한 IT 인원의 실력을 유추해보건데 법제국 인원은 자체 개발/운영이며, 정보국은 외부 협력사를 가진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면 법제국이 더 적합한 조직이다.
(KOICA)	저도 동감은 한다. 그러나 3가지 이유로 변경하는 것은 힘듭니다. 첫 번째는 법제국과 정보국을 객관적으로 비교한 자료도 없다. 이는 두 번째 조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법제국이 승낙을 한 적이 없다. 물론 신청한 것도 아니다. 세 번째는 같은 기관 내에서 한 조직 내의 사업을 다른 조직 내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 (법제) 나의 생각도 조창희 서기관의 생각과 같다. 우선 수원기관이 법무부라는 것은 오히려 다행인 일이다. 그리고 조사를 통해 비교를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다. 법제국의 승낙은 협의를 통해 변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법무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교류)
(KOICA) KOICA에서도 법제처에서도 이러한 협의는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사업의 측면에서는 BPHN을 통해 사업제안을 받았는데, 이를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힘들다. 남은 기간 내에 법제국의 승낙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고려해 보겠다.
- (법제)
(KOICA) 방안을 마련해서 접근하는 설득을 하는 방향을 말하는 것이다. 전문가 분들의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리고 본인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 사업의 측면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계획과 예산인데, 이번엔 사업의 통과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맞다고 본다. 2차 조사를 통해 수행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번 1차 조사에서는 수원기관은 법무부이고, 수행조직의 1번에 정보국을 2번에 법제국을 넣는 것은 어떠한가? RD 서명할 때까지 이러한 변경은 가능하다.
- (서기관) 1차에 변경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닌가? 실패할 것이 보이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부부처 사업으로 제안한 법제처로써 큰 위험을 가지게 된다. 또한 타당성 조사를 한 우리의 입장에서 문제도 된다.
- (IT) 그렇다면 집행계획에 어딘가에 정보국보다는 법제국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하지 않는가?
- (KOICA) 집행계획 평가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구를 남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 (교류) KOICA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럼 이후에도 수행조직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 (KOICA) 가능하다.

□ 2019. 11. 28. (목)

○ **일일 개시 회의**

- 시간: 08:00 ~ 08:10
- 장소: 숙소 로비
- 참석자: 조사단 전원
- 주요내용
 - * 일일 일정 브리핑
 - * 주요 업무 내용 브리핑



○ **관계 부처 통합 미팅**

- 시간: 09:30 ~ 11:00
- 장소: 법무부 BPHN 회의실
- 참석자: 외무부 법제정책국 1명, 법무부 협력과 2명,
법무부 BPHN JDIHN 5명, 법무부 DITIEN PP 3명,
조사단 전원 (참석하기로 한 부처들이 참여 못한 곳이 많음)
- 주요내용
 - * KOICA 사업 발표
 - * 관련 조직과 질문 및 답변



- 회의록 요약

구분	BPHN	DITIJEN PP
원조 경험	없음	있음 (오스트레일리아 - HW)
법의 순환 사이클상 역할	1. 계획 6. 평가	2. 초안작성 3. 심사 4. 공포 5. 발행
법의 순환 사이클상 발생 정보의 보관	1 ~ 6 (PDF)	2 ~ 4 (Word)
정보획득 방법	수작업	-
개발방식	외주	자체
시스템의 목적	수집	공포
희망사항	양 기관 시스템의 연결, 또는 통합	-
HW 도입연도	2016	2015
네트워크 속도	20 Mbps (법무부 IDC 속도)	

- 법령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는 곳은 DITIJEN PP 임

- KOICA는 수원기관을 법무부로 할 것이며, BPHN과 DITIJEN PP 가 함께 수행기관이 되기를 바람

○ 관계 부처 기술자 미팅

- 시간: 11:20 ~ 12:15

- 장소: 법무부 BPHN 회의실

- 참석자: 법무부 BPHN JDIHN 4명, 법무부 DITIJEN PP 4명,
조사단 1



- 회의록 요약

구분	BPHN	DITIJEN PP
인원수	280	200
PC 보급수	100여대	100여대
법령시스템의 개발기술	Javascript, PHP, MySQL	J2EE, JSP
역량 (설계)	X	X
역량 (프로그래밍)	X	O
역량 (시스템관리)	X	O

- BPHN 시스템은 트래픽 양 때문에 법무부 IDC로 이전을 함. BPHN 서버실에 남은 것은 백업 시스템과 내부용 접근 시스템임
- 법무부 IDC에 서버를 넣는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 예산이 허락하는 기관은 자체 IDC급의 서버실을 가짐
- BPHN 은 이번 사업에서 이러한 IDC급 서버실을 만들어 줄 것을 희망함
- 법무부 IDC 내에 시스템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 대해 BPHN은 법무부 IDC 센터에 의견을 받을 것임
- 법무부 하위 조직간 문서를 주고 받는 시스템은 있으나, BPHN 내부에서 문서를 주고 받는 것은 출력 문서로 진행을 함
- DITIZEN PP의 경우 API를 통해 BPHN에 자료를 준다고 함. BPHN은 이러한 자료를 받아서 점검하고 서비스에 올림. 이 때에 소속기관과 담당자를 함께 명시하여, 등록된 자료가 틀린 경우 추적을 할 수 있게 하였음
- 양기관의 시스템은 다르기 때문에 통합이 되길 원하는 것은 아님
(앞에 동일한 질문에 다른 답이 발생함. 향후 명문화하여 기록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 EGCC 방문

- 시간: 11:20 ~ 12:15
- 장소: 행정안전부 사무실
- 참석자: EGCC 이기영 소장, 조사단 1



- 회의록 요약

- EGCC는 전자정부협력센터로 2014년부터 인도네시아 행정부 건물에서 행정부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음. 금년도 12월에 철수함
- 기획부나 재무부의 경우가 전자정부는 가장 잘되어 있음. 이는 공무원의 수와 예산이 가장 많기 때문으로 추정됨
- 인도네시아는 중복 부처와 기능이 많아, 통합을 위한 대통령령이 공포됨. 그러나 이해관계의 충돌이 심함
- 인도네시아의 중복된 데이터의 경우, One-Data Policy라는 정책으로 통합하려고 함.
- 인도네시아는 의사결정이 매우 느리며, 부처 간의 협력은 힘들
- 다수 조직의 협력사업의 경우, 서로 장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
- 각 조직은 자신들의 문제를 명확히 알고 있으나, 의사결정이 느리다는 것은 알아야 함. 장/차관의 결정에 움직인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영어에 대하여 거부감은 한국보다 적은 것으로 보임
- 각 부처들이 자신의 법을 자신의 시스템에 가짐
- 국가 수준의 법 (법률, 정부령, 대령)의 경우 국가사무처, 법무부, 내각사무처가 가짐. 다수에 흩어진 또는 중복된 법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인도네시아는 UN의 정보화 수준으로 2단계 (총 4단계 중 4 단계가 선진화 된 것임)에 해당함.
- 보통 SW/HW의 경우 자체개발을 하려고 많이 하며, OSS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많은 경우 PHP를 많이 사용함. 그래서 규모가 커지면 운영 및 유지보수가 힘들어짐. DB의 경우, MySQL 또는 Postgre SQL을 많이 사용하는 편임
- 기관의 사이트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며, 운영자가 없거나 돈이 없어 시스템 운영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인도네시아 BSSN (사이버암호원, 대통령 직속기관)의 검수를 받아야 시스템을 이곳에 설치할 수 있음. 검수 기간은 약 2주 정도 임
- Java 개발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으며, 80~90만원 정도의 급여를 가진 경우가 한국의 초급기술자, 100만원 정도가 중급기술자 수준을 가짐.
- 대학이 있으며, IT 인력이 양성되고 있으나, 아직 IT 수요가 높지 않거나, 자신들만의 그룹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전공과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유선 인터넷 보급률은 50% 이상임. 도심지는 10Mbps, 외곽은 3Mbps, 정도임
- 핸드폰 보급은 잘되어 있음. 속도는 3G, 4G 사이임. 스마트폰의 경우 93.5%의 경우 안드로이드 폰이며, OPPO 폰이 가장 높은 보급률을 가짐
- 언어는 200 여개 이상이나, 글자는 영어를 사용함
- 공공데이터 공개와 관련된 법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많은 공공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보통 각 기관의 사이트가 자신의 뉴스를 제공하는 수준이기 때문임
- 공공데이터의 경우 유/무상의 개념이 없어, 아직 무료가 대부분임. 저작권이나 라이선스에 대한 개념도 아직 낮은 수준임
-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는 편임. 그러나 위계질서를 중시하여, 결정이 없이 움직이지 않는 편임.
- 고용하는 방법은 한국의 사람인과 같은 사이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 비교적 쉬운 편임
- 평균임금은 도시나 지역마다 다른 편임. 가장 높은 지역은 최저임금이 4,594,235 루피아/월 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0년에는 정부령에 따라 8.5% 정도 인상됨
- 인도네시아에는 이미 다양한 한국계 은행들이 진출하여 있음
- 장기 비자의 경우 연장이 쉽지 않음. 1년마다 연장을 함. 보통 승인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림.
- 가능한 인도네시아 사람을 앞세워서 일하길 바라며, 실력 있는 통역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함

○ **일일 종료 회의**

- 시간: 18:30 ~ 19:00
- 장소: 숙소 로비
- 참석자: 조사단 1
- 주요내용
 - * 주요 업무 결과 공유
 - * 집행계획 작성 역할 분담



□ 2019. 11. 29. ~ 30. (금~토)

○ **일일 개시 회의**

- 시간: 08:00 ~ 08:50
- 장소: 숙소 로비
- 참석자: 조사단 전원
- 주요내용
 - * 일일 일정 브리핑
 - * 주요 업무 내용 브리핑
 - * 숙소 체크아웃



○ **KOICA 파견 종료 회의 및 전문 초안 작성**

- 시간: 09:30 ~ 17:00
- 장소: KOICA 현지 사무소
- 참석자: 조사단 전원
- 주요내용
 - * 파견 결과 종합
 - * 전문 작성 가이드라인 협의
 - * 전문 작성

○ **Oracle 기술 조사**

- 시간: 14:00 ~ 15:00
- 장소: KOICA 현지 사무소
- 참석자: 오라클 기술자 3명, 조사단 3

- 회의록 요약

- 정부에서 조달하는 절차가 있으며, 수의계약도 다수 있음
- 한국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인도네시아 오라클에서는 이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한국 오라클이 아닌, 한국과 인도네시아 오라클이 별도 계약을 해야함
- 인도네시아 오라클에서 계약하는 경우, 제품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발송됨. 한국까지의 배송비는 제품 가격에 포함되나, 한국에서 인도네시아의 배송 및 인도네시아 통관은 한국에서 부담해야 함
- 일반적으로 10%의 인도네시아 부가세가 부담이 되나, KOICA와 인도네시아 국가사무처를 통해 이러한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납품시간의 경우, HW는 6~8주가 걸리며, SW는 그보다 적음
- 기본 보증기간은 1년이며, 연장할 수 있음 (추가 비용발생)
- 유지보수율은 연간 미들웨어 22%, HW 12% 임
- 인도네시아 오라클에는 400명 정도가 근무하며, 인도네시아 내 파트너 사가 약 500개 정도 있음, 이 중 Java + Spring Framework (한국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의 기반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개발이 가능한 추천할 수 있는 SW업체는 15개 정도 있음.
- 정부기관의 사업은 다수 진행해 보았으며, 보통 6~8개월 짜리가 보통임
- 보통 SW 유지보수의 경우 12% 정도의 유지보수율을 가짐
- 인도네시아 오라클에서도 가격 DC는 있음
- SW 가격 책정은 협의가 일반적임. 그리고 MM 방식을 선호함
- 인도네시아도 SW 인건비에 대한 기준이 존재함



○ SEGARA 기술 조사

- 시간: 15:00 ~ 16:00
- 장소: KOICA 현지 사무소
- 참석자: SEGARA 개발자 3명, 조사단 2, 조사단 3

- 회의록 요약

조직 일반

- SEGARA 는 BPHN의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업체임
- SW 개발 업체이다. BPHN 정보시스템 개발은 5명에 3개월 규모를 가짐. 개발 계약금액은 1억 9천만 루피아임
- 유지보수는 2명으로 진행중임. 금년도는 5천만 루피아임
- 주로 IT컨설팅, SW 개발을 수행함.
- 전체 인원은 22명이며, 5명의 SW 개발자가 있음
- 타기관 사업에 2개 참여해보았음
- 주요기술은 PHP 이나, Java, 프레임워크 등에 익숙한 편임. 다만, Spring Framework를 사용하여 개발해 본적은 없음
- 일본기업과 협업해본적 있음. 문서는 영어로, 통역은 일본에서 인도네시아 인을 고용하여 대화함

BPHN 정보시스템

- BPHN 시스템 유지보수는 자주 개선, 수정요구가 발생함
- BPHN 유지보수는 Call 방식으로 원격으로 접속하여 수행하며, IDC 내에 들어가 본 적은 없음.
- BPHN 정보시스템은 관리자 시스템이 있으며,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방식임
- BPHN 메타데이터 입력 공무원은 3명임

인도네시아 일반

- 고급기술자는 13,000,000 루피아, 중급기술자는 9,000,000 루피아, 초급기술자는 6,000,000 루피아, 단순입력자는 4,000,000 루피어를 월급으로 받음
- 외국 업체와 일해본 경험이 있음
- 인도네시아의 서버들은 보통 HP임.
- 컴퓨터 학원은 다수 있으나, 규모가 작은 편임
- 문서 작성과 관련된 인도네시아 자격증이 있음
- 요즘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컴퓨터는 잘 다룸

○ 항공이동

- 시간: 29일(금) 21:50 ~ 30일(토) 07:00
- 인도네시아 수카르노-하타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항공이동

